

† 마테데스는 켈자라는 뜻의 헬라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 마테데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존재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만 마음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됨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정제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신 신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스스로에게 묻자

신윤식

스스로에게 묻자  
풍요롭다 하나 감옥 같은 세상  
그 속에 갇힌 줄도 모르고  
우린 오늘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텅 빈 고요일까  
누군가의 허무한 숨결일까  
아무도 없는 빈 방에 들어갈 때처럼  
문 앞에 그분 서 있건만  
발걸음만 망설인다.

떨어지는 낙엽에  
어우러진 바람소리  
텅 빈 가슴으로  
아무런 기대 않고 눈 감은 채  
하늘에 기댄다.

해답은 질문 속에 있다.  
건성으로 묻고  
성의 없이 대답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이 보이니  
스스로 물어보고 답을 찾아보라.

대한예수교장로회

##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mailto: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2.12.2

발행호수 제20권 48호

**복** 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가 많이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

으로 봐야 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확인되는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도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지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은 모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귀신 들린 것으로 여겨야 할까요?

저는 소위 축구의 능력이 있다는 목사로부터 귀신을 쫓아낸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가 말한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는 이랬습니다. 일단 귀신 들렸다고 한 그 사람은 그 교회를 다닌 청년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욕하며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놀라서 축구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담임목사를 부른 것이고, 그 목사가 청년 교인을 붙들고 인수 기도를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물러가라'고 소리치자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일을 실제로 접했다면 신기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얘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것처럼 눈에 드러난 현상에 매이는 것은 신앙생활에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먼저 주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같은 현상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보다는 무당의 세계에서 오히려 더 실감 있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귀신들린 사람은 겨우 발작 정도이지만 무당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귀신과 소통을 하고, 신이 내린 사

주일오전설교  
눅 8:26-39

## 하나님의 큰 일

람은 작두위에서 춤까지 춘다고 하니 더 실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당은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귀신들린 사람일까요, 무당이라고 해서 그 행동이나 생활 자체가 정신이상자처럼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반 사람과는 다른 것이 있겠지만 본문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옷을 벗고 집이 아닌 무덤에서 지내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생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라사인은 이방인들입니다. 따라서 귀신들린 사람도 이방인이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일을 목격한 모든 거라사인들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에 대해서도 물론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 즉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거라사인들은 귀신 들리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정하게 옷을 입고 무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해서 귀신 들리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점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연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밖에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정상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시각에서 정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아무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수준 높은 도덕과 윤리적인 모습을 유지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다면 그는 귀신 들린 상태, 즉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 하십니다(29절). 그리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자 귀신이 '군대'라고 답합니다(30절). 이것은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 현상은 단지 옷을 입지 않고 무덤에서 지낸 것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지만 그 맨 것을 끌고 광야로 나갔다고 한 것을 보면 귀신에 의해 쇠사

슬까지 끊어버리는 힘이 있었음을 짐작하게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같은 힘으로 주변 사람의 목숨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신들린 사람의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어떤 처지와 상태에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무덤에서 지낸다는 것은 부끄럽고 비참하게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귀신들린 그 사람은 자신이 부끄럽고 비참하게 살고 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옷을 벗고 무덤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끄럽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얼마나 인식합니까? 사람들은 기껏해야 남들보다 적게 가졌다는 것으로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탐욕이 있다는 것이고, 시기, 미움, 분쟁, 시기, 교만, 자랑 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을 시기하고 교만이 있고 비방하기도 하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서도 그 같은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한 영에 지배를 받고 있는 실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악한 영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 부끄러움이 되는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로 예수님과 관계에 있기를 거부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또한 필요 없는 존재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롬 9:3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 말합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그의 피로 덮어주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예수님을 원한다면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귀신들렸던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습니다. 옷을 벗고 무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비참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보게 됨으로써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신이 온전해진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때문에 현대인들이 아무리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탐욕과 불의와 시기와 미움과 비방 등의 죄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예수 또한 나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옷을 벗고 무덤에서 생활하는 귀신들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 교회를 보면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른 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돈을 향한 집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내가 자랑되어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를 보면서 판단과 비방을 일삼습니다.

이런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대 교회를 보면 자신의 자랑스러운 행함을 내세워 부끄러움을 가리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교인으로 세움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에 온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자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니 돼지 떼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모든 일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합니다. 귀신들린 사람을 고친 것을 봤으면 그 같은 신기한 일을 행한 예수님

께 자기들과 함께 있어달라고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떠나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돼지 떼를 잃었다는 것이 이유일 가능성이 큼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돼지 떼라고 하는 헛된 것에 마음을 둬서 인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한 것이 됩니다. 귀신들려서 미쳤다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정신이 온전하게 된 반면에 정상적으로 산다고 했던 사람들은 헛된 것 때문에 참된 것을 버리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실상임을 본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라사인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하지만 귀신 나간 사람은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고 하십니다. 이것이 귀신 나간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정신이 온전하게 된 사람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러운 군대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서 웃을 입고 무덤을 떠나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은 더러운 군대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웃 입고 주와 함께 하게 된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웃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는 죄와 더러움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하심으로 가려주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신자가 전파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윤리나 도덕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남들보다 초라하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것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는 것으로 부끄러워하십시오. 지식이란 재물

이든 타인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는 것으로 부끄러워하십시오.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부끄러워하십시오. 나의 의와 가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으로 부끄러워하십시오. 그 모든 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다스림으로 웃을 벗고 무덤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안에서 그리스도로 웃 입은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며, 이 큰 일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시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사건으로부터 기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의 창조와 연관된 안식은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안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스스로 되고자 하는 욕망에 갇히게 됨으로써 자기 존재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안식이 깨어진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하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의미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심으로 애굽으로부터의 자유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 그리고 그 땅에서 자신들이 노동하지 않고 누리

주일오후설교

시 92:1-15

주께서  
행하신 일

(96장 11.4일 설교)

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노동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함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92편을 안식일 찬송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부른 시라는 형식적인 면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 즉 하나님의 무엇을 찬송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생명의 문제를 간과한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할 뿐이고 따라서 생계적인 조건만 충족히 갖추어 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써 충족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계적인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신자는 생명의 문제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두 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계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신자는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이 있는 자로 살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그 일을 높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높여야 하는 것은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행하신 바로 그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모인 교회에서는 인간이 행한 일이 자랑되고 높임 받을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굳건한 원칙으로 자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1절을 보면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

**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풀이 좋으니이다”** 라고 찬송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풀이 좋다는 것은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즉 시편 저자는 주께서 행하신 일에서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일이 시편 저자가 말한 주께서 행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많이 둔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일까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먹고 사는 생계 문제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생계 문제가 풍족히 해결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습성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풍족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형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대한 생각 역시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6절에서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늘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배풀어지는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계 문제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족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생각되는 자신에 대해서는 실망하기 때문에 주께서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변성이 생명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들은 풀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흉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7절)고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변성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악인을 생명에 있게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주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성하든 빈곤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풀 같이 자라고 흉왕 한다고 해도 우리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이것이 악을 행한 자에게 주어질 결국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뿔을 들소의 뿔 같이 높이셨으며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10절). 하나님께서 죄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쇠함이 없는 진정한 번성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고 말합니다. 의인의 번성은 악인의 번성과는 다릅니다. 악인은 풀 같이 자라지만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이 번성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풀같이 자라는 것은 아무리 무성하게 자란다고 해도 곧 시들고 잘라져 버릴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강하고 단단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의 번성은 시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가꾸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신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신자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의미와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안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번성은 풀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빨리 무성하게 자란다고 해도 악을 행하는 자의 길은 멸망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것을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진정한 번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의 길로 행하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에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뜰에서 쇠하지 않는 영원한 번성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이 세상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의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비록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형통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신자의 일은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설교  
렘 22:1-12

## 패망의 이유

(54강 11.7일 설교)

하 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

**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3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지만 준행하지 않으면 유다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4,5절).

이제 유다의 운명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패망하게 된 이유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8,9절의 내용을 보면 장차 유다가 파멸했을 때 지나가는 이방인들로부터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는 조롱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 29:24-26절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주셨던 경고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것을 보면 유다의 패망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즉 유다가 황폐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어야 하는데 왜 언약을 준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을 패망의 이유로 말씀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 고아, 과부를 학대하고 압제한 것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 것과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봐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레 18: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 가게 하시기 전에 약속의 땅에서는 애굽 땅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애굽이나 가나안 거민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더러워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이스라엘을 토하여 내친다고 합니다.

약속의 땅에는 그 땅에 어울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기존의 풍속과 규례는 약속의 땅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레위기에서는 근친상간이나 남자가 남자를 사귀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외시 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풍습이었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같은 것을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그 같은 이방의 풍속과 규례는 벗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땅이 아니라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 어울리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함께 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거나 압제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드러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방의 풍습은 소유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힘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것이 상대적으로 약자의 자리에 있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학대당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것이 곧 패망의 이유가 되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이 약자에 대한 학대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어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을 토하여 내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는 소유를 더 확대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더 확대시켜줄 신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의 풍습이었는데 유다 역시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에 집착을 하는 것은 소유를 힘으로 여기기 때문이고, 힘없는 약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들의 죄의 습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소유가 힘이 될 수 없습니다. 힘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그 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소유를 힘으로 여기게 된 것이고, 우상을 섬긴 이유가 된 것입니다.

유다는 세상이 죄로 인해서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 곳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힘으로 여기는 이방나라야 말로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임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방인이 누리는 부요만 보였고, 그것이 부러웠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은혜도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무엇이 그들을 부요하게 할 것인가에만 마음을 두고 그 길로만 가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패망의 이유인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요를 보기 전에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소유와 부요를 헛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은 이미 사망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학대 받는 세상의 풍습을 보면서 세상에 예정된 결국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비로소 생명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세상의 소유도 헛된 것으로 다가를 뿐입니다. 그래서 강자 약자가 없이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154(139)장  
 교 독 : 87(계21장)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458(513)장  
 성 경 : 눅 8:26-39  
 말 씀 : 하나님의 큰 일(37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84(206)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1장  
 축 도 : 설 교 자

##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67(201)장  
 기 도 : 송수경 집사  
 찬 송 : 321(351)장  
 성 경 : 시 95:1-11  
 말 씀 : 완악한 마음(99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11(473)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58강)

## ■ 교회소식 ■

1. 예배 후에 제직회 모입니다.
2. 재건총회신학원 건물 건축이 시작되어서 전국교회에 헌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은석교회도 12월 둘째 주일까지 헌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2013년도 달력이 제작되었습니다. 한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조규현 장로    오후 - 김현동 집사

## 이단 ⑦

행 17:11절에 보면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라고 말한다. 베뢰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일단 한 가지는 제외할 수 있다. 그것은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란 것이다. 복이라든지, 부흥이라든지, 만사형통이라든지, 심지어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아닌 것이다. 만약 그것이 세상의 것이든 구원이든 자신을 위한 뭔가를 얻기 위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세계보다는 자기 세계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을 향한 간절함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은 아닌 것이다.

베뢰아 사람들의 간절함은 성경이 증거하는 세계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된 것’도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고자 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이 함께 한 신자다. 이처럼 성령이 함께 한 신자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자기 경험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오직 말씀의 능력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하는 복음의 세계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무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이나 현상들에 마음을 두고 그러한 것을 성령의 역사, 또는 은사나 믿음의 능력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지로 인해서 이단의 잘못된 말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마 7:22-23절에 보면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고 말씀하신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보고를 하는데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 땅에 오신 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가신 바로 그분이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다만 주가 자신들의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권능을 나타내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인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다.

또한 마 12: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고 하신 말씀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경험을 성령의 능력이나 역사로 간주하고 그 같은 것을 쫓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일 뿐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요나의 표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만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표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